

서 점진적으로 진화하는 것이며, 결코 돌연변이 설과 같은 과정에 의하여 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Darwin의 진화론 중에서 세번째로 문제가 된 것은 자연선택이 자연상태에서 그때그때의 주어진 환경조건에 의하여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보다 고차적인 “선택”에 의하여 이미 계획된 방향으로 일어나며 “완전”한 생물로 진화하여 간다는 소위 Nägeli, Eimer의 목적론적 경향진화설이 그것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Simpson을 비롯한 여러 고생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여 화석의 진화경로를 조사한 바 생물의 진화경로는 어떤 일정한 방향을 향하여 계속적인 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진화의 방향이 때에 따라 바뀌는 예가 많고 심지어는 어떤 진화과정은 과거의 진화과정에 역행하여 반대방향으로 진화의 방향이 바뀌는 경우도 있음을 밝혔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진화의 방향은 일정하게 이미 정해져 있어 그곳을 향하여 진화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의 조건에 따라 진화의 방향이 결정된다고 함으로써 경향 진화설을 부인하고 Darwin의 점진적 진화론을 옹호하였다.

이밖에도 진화론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들이 상세히 연구되고 생물학의 모든 분야에서 얻은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오늘날에는 진화가 한가지 요인에 의하여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루어진다고 보는 synthetic theory 또는 organic evolution이란 현대 진화론을 확립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유전학과 집단유전학의 도움으로 유전적 변이의 본질과 이 변이가 진화에 어떻게 관여하는가를 구명하게 되었고 생물학적 종의 개념이 수립됨에 따라 종이 환경과의 상호 작용에서 어떻게 변화해가는가를 알게 되고 또 생태학, 동물행동학 등의 연구결과로 환경변화에 따른 동물의 행동변화가 진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를 알게 됨으로써 이런 모든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세워진 종합적인 진화론으로서 진화가 이루어지는 기작은 유전적 변이와 자연선택의 두가지에 의하여 생물이 진화한다고 설명한다. 현재로 보아서 진화론은 완성에 가깝다고 하겠으나 아직도 해

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여긴다.

여러 종류의 유전적 변이 중에서 어떤 변이가 직접 진화에 관여하고 어떤 변이는 관계가 없는가? 종의 형성과정에서 지리적 격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나 동일지역 내에서의 종 형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유전자들은 모두 동일한 비중으로 진화에 기여하는가? 염색체변이(배수체, 유전자재배열)는 종의 형성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유전자변이와 염색체변이는 어떤 것이 진화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등등의 많은 문제들이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이다. 특히 동물행동학은 진화의 기작을 규명하는 데 크게 기여하나 이 분야는 아직 초창기에 있어 앞으로 많은 연구과제가 산적해 있다.

본 발표에서는 진화를 소진화(microevolution)와 대진화(macroevolution)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하며 소진화에서는 유전자 및 염색체 돌연변이와 생식적 격리를 통하여 종의 형성과정을 논하고 아울러 진화적 전지에서 본 인류의 장래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하며 대진화는 punctuated equilibria theory를 중심으로 1980년 Chicago에서 열린 진화론 심포지엄의 내용을 요약 소개하고자 한다.

中國에서의 進化論

— 梁啓超의 경우를 중심으로 —

外國語大 朴 星 來

Charles Darwin이 생물학에서의 進化論을 완성하기 훨씬 전부터 서양에서는 인간사회의 進化에 대한 믿음이 오랫동안 자라고 있었다. 17세기 이래 西歐社會의 급격한 변화는 바로 이런 進化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가능했던 것이고 또한 社會의 변화가 그런 마음을 갖게 해 주었다고도 할 수 있다. Darwin의 生物進化論 자체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Erasmus Darwin이나 Lamarck 등의 부분적 공헌에 힘입어 完成된 이론이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Darwin의 이론이 나올 수 있었던 知的 환경을 우리는 進歩史觀으로 부를 수도 있다. Voltaire, Condorcet,

Buckle 등을 잇는 18세기의 啓蒙思想家이며 歷史家들은 모두가 인간의 進歩를 믿는 낙관주의자들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進歩史觀이 中國에는 거의 없었다. 오히려 보다 강한 전통을 이룬 中國의 歷史觀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역사를 堯舜의 이상적인 시대 또는 이상적이었던 三代 이후 날로 타락해 가고 있다는 의식뿐이었다. 荀子나 公羊學派처럼 또는 王安石 같은 소위 “異端” 유학자에 의해 간혹 進歩史觀 비슷한 생각이 표현된 일도 있고, 孟子조차 歷史란 순환을 거듭한다는 표현을 쓴 일은 있으나 이런 생각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는 못했다. 19세기 중반 아편전쟁의 결과 開國을 당하면서부터 中國人들에게는 적지 않은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과거 250여년간 中國에서 활동한 西洋선교사들의 과학기술이 우수한 줄은 알았으나 西洋의 文物·制度 일반에 대한 지식은 거의 없는 채였다. 단지 武器 등만이 아닌 모든 분야에서 西洋의 우수성이 눈에 띄자 中國의 지식인들은 이를 배울 수밖에 없음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이 改革의 철학으로 제시된 대표적인 發展史觀은 康有爲(1858—1927)의 立教改制운동으로 나타났다. <春秋公羊傳>의 해석에 따라 그는 인류의 歷史는 據亂世 → 升平世 → 太平世의 세 단계(三世)를 거쳐 발전한다고 주장했다. 「孔子改制考」에서 이 3단계 역사발전론이 바로 孔子의 주장이었다고 내세운 康有爲는 「大同書」를 써서 앞으로 다가올 太平世에서의 인류大同의 모습을 그려 내기도 했다. 그는 孔子를 社會改革運動者로 재해석하고 자기 자신을 孔子가 이미 예측하고 있던 3000년 뒤의 예언자라고 자부하고 있었다. 비록 표면상 그의 發展史觀이 孔子, 즉 中國의 전통에 뿌리를 둔 주장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의 이러한 주장에는 西洋文物의 영향이 절대적이었고, 특히 Newton物理學 등의 영향도 큰 것이었다. 그는 짐짓 中國傳統과의 연계성을 강조했을 뿐이다.

梁啓超(1873 - 1929)는 바로 康有爲의 수제자였고 그와 함께 戊戌變法운동에 가담했다가 실패하고 日本에 망명했다. 1898년 9월의 일이었

다. 25세의 청년 梁啓超는 1년쯤 뒤에는 日語를 대강 읽을 수 있게 되었고 이때쯤부터 그의 思想은 근본적인 변화를 갖게 되었다고 1902년에 그 자신이 회고하고 있다. 1902년 그가 「新民叢報」를 격주로 발행한 것은 그의 思想轉換이 무르익었음을 보여 준다. 그는 1902년 1월 1일부터 이 잡지를 통해 “新民說”을 연재하여 역사를 社會進化說(Social Darwinism)로 해석하고 이 투쟁의 소용돌이에서 中國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新民하는 길밖에 없음을 외치기 시작했다. 이때 전후 거의 10년은 梁啓超의 영향이 中國의 청년들에게 절대적인 때였다. 胡適과 毛澤東이 모두 1902년 전후의 그를 얼마나 존경했던가를 회고하고 있다.

梁啓超의 進化論에 대한 관심은 이보다 몇 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中國에 進化論이 처음 소개된 것은 1896년 嚴復이 T.H. Huxley의 *Evolution and Ethics*를 번역한 뒤부터였다. 이 글은 1897년 잡지에 연재되고 이듬해엔 「天演論」이란 이름으로 출판되어 中國 지식층을 사로잡게 되었다. 梁啓超는 이것이 발표되기 전인 1896년에 이미 원고상태에서 이것을 읽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러나 그 당장에는 영향은 눈에 띄일 정도는 아니었다. 1897년에 쓴 그의 글에서 梁啓超는 스승 康有爲의 사상을 중심으로 하고 거기에 進化論과 仁의 사상을 덧붙이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적고 있다. 1899년 前半까지만 해도 梁啓超는 中國의 장래를 상당히 밝게 내다 보면서, 이 세상은 生存競爭의 세계이지만 中國人은 오랜 自治와 獨立전통, 그리고 높은 學問과 인구 및 자원 등을 갖고 있어 희망적임을 말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白人은 自慢하여 일하지 않으려 하고 黑人은 게으르고 지능이 모자라 오직 黃人만이 앞으로의 世界를 지배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南美와 아프리카는 머지 않아 黃人種의 植民地가 되리라고 그는 예언까지 하고 있다. 또 1899년의 다른 글에서 그는 歷史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秦始皇·알렉산더·징기스칸·나폴레옹 등의 개인적 야망이나 원한 같은 것이 아니라 國民 사이의 투쟁이라고 내세웠다. 그는 國家란 國民의 것이지만 中國에는 “國民”이란 생

각은 없었다고 개탄하면서 일종의 民族主義의인 생각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의 民族主義는 漢族만을 생각하는 그런 民族主義가 아니었음은 분명하다. 梁啓超는 1898年 日本에 亡命하여 日語를 열심히 배우고 있었고, 1899년에는 “支那와 日本은 언젠가 合邦될 것이므로 서로 말을 통해 둘 필요가 있다”면서 두 나라의 志士들이 서로의 말을 배워 둘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가 日本式 이름을 갖게 된 것은 이때쯤부터였던 것 같으며 그의 이름 吉田晋은 吉田松蔭에서 딴 것이었다.

1899年 11月 Hawaii로 간 梁啓超는 이듬해 7月 上海에 들렀다가 다시 외국을 여행하고 1901年 4月 日本으로 돌아왔다. 그는 이 海外여행을 통해 안목을 전세계로 넓히고 또한 동시에 世界史와 그 속에서의 中國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 같다. 그의 歷史觀은 Social Darwinism의 노골적인 표현으로 나타났다. “歷史와 人種의 關係”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歷史란 무엇인가? 그것은 人種의 發達과 그 競爭을 서술하는 것일 따름이다. 人種이 없다면 歷史란 없다. 왜냐하면 歷史란 사람이 모임으로써 비롯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이 모임에는 반드시 안으로는 결합하고 밖으로는 배척하여 이로써 人種이 구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처음에는 家族이 결합하고 같은 마을의 사람들이 뭉쳐 다른 마을 사람과 다투고, 다음에는 한 部族이 뭉쳐 他部族과 싸우며 이어 한 國家가 힘을 합쳐서 다른 國家와 싸우게 되었다. 이는 실로 수천년간 세계역사의 전개과정이었다. 그리고 지금은 國族이 서로 결합하고 서로 배척하는 時代이다. 무리와 무리가 서로 배척하는 것은 大同太平의 모양은 아니다. 또 밖으로 향한 배척이 강하지 않다면 안으로의 단결심 또한 강할 수가 없다. 안으로의 단결심이 강하지 않고서는 무리는 함께할 수가 없게 되고, 따라서 歷史上 명예로운 위치를 차지할 수는 없게 된다. 따라서 世界가 날로 進歩할 수록 種族論도 더욱 분명해지는 것이다. 아! 이후에도 어떤 사람이 있어 人種의 차이가 없어져 萬國이 大同하는 세상이 오리라고 믿을 수가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나는 감히 알지 못한다. 그러나 오늘에 있어서만은 人種문제야말로 全世界의 단 한가지 중요한 문제라 해서 過言이 아닐 것이다.

그는 여기서 그의 스승 康有爲가 내세운 大同과 太平의 시대를 불가능한 이상으로 판정내리고 그 나름의 歷史觀을 대신 내세우고 있다. 그에 따르면 世界史는 人種 사이의 투쟁인데 현재 자격이 있는 人種은 黃種과 白種들뿐이다.

여러나라는 世界主義에서 民族主義로 태도를 바꾸더니, 이제는 民族帝國主義의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梁啓超는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民族이 자기 세력을 밖으로 넓혀가는 것을 이렇게 불렀고 거기에는 영어로 National Imperialism이라는 설명까지 붙여 있다. 그리고 이런 19세기 최대의 思想的 轉換을 가져온 장본인이 바로 Darwin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Darwin 이전에는 학자들은 인간에게 天賦의 權利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Darwin에 의해 생존경쟁(物競), 자연선택(天擇), 優勝劣敗의 원리를 밝명한 이래 세상에는 오직 強者만의 權利(強權)가 있을 뿐, 平權은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는 것이다. 權이란 사람이 스스로 구하여 얻을 것이 아니라 하늘이 주는 것(天賦)이 아님이 분명해졌다고 梁啓超는 말한다. 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東大총장 加藤弘之의 진화론 저작을 보고 부터였다. 1900年 이후 그의 Darwinism의인 社會思想은 주로 日本에서의 독서결과로 얻은 것들이었고, 이 흡수과정은 자기 자신도 인정한 것처럼 “梁啓超式”이어서 조직도 없고, 선택도 없고 本末도 派別도 분명치 않게 마구잡이로 서양 사상을 受容한 것이었다.

梁啓超의 Darwinism 受容이 “梁啓超式”이 될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救國의 길이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優勝劣敗의 세계에서 中國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민이 새로워지는 수밖에 없다고 깨닫게 되었다. 이런 각성이 1902年 1월부터 그가 出刊하기 시작한 「新民叢報」에 연재한 “新民說”이다. 이 글의 시작에서 그는 세상의 110餘個國 가운데 앞으로 생존경쟁에 살아남을 나라는 4~5개뿐일 것이라면서 中國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中國人의 정신적 부활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그리고 이 과업을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이 歷史學이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다. 지금 西洋에 있는 학문분야는

거의 다 中國에는 생소한 分野인데, 오직 史學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유럽에서 民族主義가 발달하고 文明이 나아간 이면에는 史學의 공헌이 曄은 된다고 생각했다. 생존경쟁의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新民해야 하고, 또 이를 위하여는 史學이 필요하다. 전통적인 史學이 아닌 새로운 史學을 일으킴으로써만 中國을 救할 수 있다고 梁啓超는 단언했다. 그는 中國의 傳統史學이 가지고 있는 잘못을 네가지로 지적하고 그로부터 파생하는 두가지 병폐를 들어, 이들을 고쳐야만 중국의 史學이 제몫을 할 수 있으리라고 말한다. 그는 中國의 史學은 朝廷만 있고 國家가 없으며, 個人만 있고 社會가 없으며, 옛기록은 있으나 오늘날과의 관련성은 없으며, 사실만 있지 歷史意識이 없다는 것을 비판하면서 中國에는 아직 진정한 의미에서의 史家は 없었다고 단정했다. 歷史란 인류사회의 進化의 법칙을 발견해 내는 노력이라는 것이 進化論者 梁啓超의 歷史觀이었다.

Spencer를 높이 치켜 올린 梁啓超는 1894年 *Social Evolution*을 써서 일약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킨 Benjamin Kidd에도 관심을 가져 利己心이란 가장 非社會的이고 또 가장 非進化的이라 매도하면서 中國의 進化를 위해서는 個人을 희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같은 이유에서 그는 스위스의 정치학자 Johann Bluntschli(1808—1881)를 “20세기의 어머니”라고 불렀다. Rousseau가 19세기 민주주의의 “어머니”였던 것처럼, Bluntschli는 20세기를 지배하는 國家主義의 주창자라는 것이었다. 19세기가 國家가 人民을 위해 존재하는 시대였다면, 20세기는 人民이 國家를 위해 살아야 하는 시대라고 그는 주장하고 있다(1902年). 그는 國家를 투쟁의 단위로 보고 있었던 것이라 하겠다. 또 이 투쟁에서 內的인 結束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Mazzini의 이탈리아나 明治시대의 日本 같이 宗教의 도움이 필요하다고도 생각했다. 그는 바로 이 內的 團結에서 실패하여 亡하게 된 것이 朝鮮이라고 1910년을 전후하여 여러차례 말한 일도 있다. 그는 朝鮮은 全世界에서 個人主義가 제일 극성한 나라이며, 이때문에 모든 朝鮮人は 각기 자기 이익을 좇아

中國黨·日本黨·俄黨으로 바뀌가다가 나라를 망친 것이라고 “朝鮮滅亡之原因”을 보았다.

梁啓超가 크게 활약하던 1900—1905년 사이 中國의 모든 지식인들은 Social Darwinism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胡適(1891—1962)이 원래의 이름 胡洪辟을 집어 던지고 이 세상에서 “適”자가 되겠다고 이름을 바꾼 것도 이때였고, 毛澤東(1893—1976)은 梁啓超의 「新民叢報」를 읽고 또 읽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鬭爭을 통한 進歩라는 역사해석은 1900年 이후 中國 지식층의 사고방식을 절대적으로 支配하게 되었고 그 뿌리가 바로 Darwin에 있었던 것이다.

梁啓超의 西洋에 대한 믿음은 1919年 유럽여행으로 끝장이 났다. 그는 더 이상 西洋과 그것을 받쳐 주는 科學의 힘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그는 인간의 역사가 투쟁을 통해 진보한다는 믿음은 변하지 않았다. 毛澤東 같은 청년들은 이미 그의 생각을 저버리고 陳獨秀의 「新青年」을 읽고 있었고 급진적인 革命을 원하고 있었다. Darwin에서 시작한 毛澤東은 Marx와 Engels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으나, 康有爲에서 출발한 梁啓超에게는 오히려 인류의 진보가 어떤 至善極美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 같다. 그는 만약 proletariat가 政權을 잡는다면 그들이 다시 지배계급으로서 횡포할 것이므로 歷史는 끊임없는 갈등과 투쟁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결국 末年의 梁啓超는 영원한 투쟁과 갈등으로부터 인간이 벗어나는 길을 宗教的인 超越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Darwinism이 1900년 이후의 中國에 미친 가장 중요한 영향은 그것이 強力한 進歩史觀을 中國知識層에게 심어 주었다는 사실이다. 梁啓超는 그중 가장 처음, 또 제일 대표적인 Darwinism 수용자였다. 그는 그뒤 平生을 Darwinist로 머물렀으나, 처음에는 民族과 民族의 투쟁을 제일 중요한 것으로 보아 新民을 통한 中國의 復活을 부르짖었고 그후에는 점점 革命的 變化의 가능성을 의심하기 시작하여 뒤에는 소극적인 社會改革論者가 되고 말았다. 이와 대조적으로 그에게서 Darwinism을 수용한 毛澤東은 투쟁의 제일

중요한 단위는 國家間 및 階級間이라면서 두 가지의 투쟁을 동시에 추진하여 革命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후의 결과만 보면 毛澤東은 옳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성공이 증명하는 것은 그의 생각이 옳았다는 사실이라기보다는 그의 時代가 얼마나 Darwinism이 판을 치던 시대였었가를 보여 주는 것뿐이다. Darwin의 영향으로, 그리고 毛澤東의 성공으로 인하여 東아시아에는 급진적인 進歩史觀이 깊은 뿌리를 내리게 되었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克服하지 않으면 안될 우리 時代의 難治病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한국에서의 다윈주의의 수용

성균관대 朴 相 允

우리나라에서 다윈주의를 받아들인 것은 1880년대에 일본인들의 번역서 또는 저서에 의했지만, 1900년대에는 중국인들이 쓴 글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수용되었는데 특히 嚴復(天演論, 1898)과 梁啓超(飲水室文集, 1903)의 영향은 대단히 컸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우리나라는 生物學의 기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과학에 근거를 둔 「種의 起源」은 논의할 수 없었고, 物競天擇(適者生存)과 優勝劣敗(生存競爭)를 公式으로 삼아 國民을 각성하려는 思想的 기반으로 삼았던 것 같다.

1900년을 전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다윈주의를 소개하는 글도 있기는 하나 이를 사상적 기반으로 삼은 글들이 더욱 많다. 더욱 다윈주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생물학적 기초가 없기 때문에 번번이 誤謬를 범하고 있음이 散見된다.

梁啓超와 같은 이도 「飲水室文集」中 「治國學的 兩條大路」에서 猿類로부터 人類가 進化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既存種으로부터 新種이 起源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즉

『…再如達爾文之用生物進化說…人既自猿進化以來, 爲什磨人自人而猿終爲猿? 恐怕他也不能結我們以很有理由的解答. …』(다윈의 生物進化論

을 가지고…人類가 猿類로부터 進化한 이래 어찌하여 인류는 인류이고 猿類는 끝내 猿類로 남았는가 아마도 그들도 우리에게 충분히 條理있는 解答을 줄 수 없을 것이다. …(李桂柱譯, 三星文化文庫, 39, 「中國古典入門」, p.36)

또 俞吉濬이 우리나라에서 進化思想을 최초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하는 이도 있으나 그의 「西遊見聞」13편 「學術來歷」에 소개된 生物學者를 보아도 進化에 관심이 없었던 것 같고 또 人類發展을 未開(野蠻) → 半開 → 文明의 方向을 취한다고 한 것도 진화사상이라기보다는 L.H. Morgan(1818 - 1881)의 *Ancient Society*(1877)에서 분류한 야만 → 미개 → 문명의 방향과 비슷하다. 더욱 進化는 直線的인 發展이 아니기 때문에 俞吉濬은 다윈주의자가 아니며 또한 영향도 받지 않은 듯하다.

다윈주의를 그대로 소개한 글 중에는 상당히 깊은 곳까지 탐구한 흔적이 보이는 것이 있다. 石洲 李相龍의 「進化輯說」에서는 다윈의 「種의 起源」을 이해하고 있는 듯하며, 「共修學報」2호(1907. 4. 30)에는 朴有秉이 27 - 29, 3面に 걸쳐서 生物學的인 내용으로 「進化論」이란 題目으로 소개한 것이 있다. 『生物은 其體內와 外界에 狀態로써 直接으로는 其體와 間接으로는 其生殖器官에 人工을 加하여 原種을 變제 하느니』의 내용으로 보아서 후천형질의 유전을 新種形成의 메카니즘으로 여겼던 것 같다. 특히 優勝劣敗와 物競天擇을 강조하고 있다. 즉 『動物은 如斯한 自然淘汰에 因하여 生存하는 物인 故로 自己에 能力으로써 能히 外敵을 防하는 者만 現世에 存在하는 地位를 占得하고 其他은 皆消滅한 境에 歸하느니』라고 했다. 李相龍도 이점은 마찬가지로 『達爾文 英吉利人 種原論曰, 生物變遷之原因, 皆由生存競爭優勝劣敗之公例, 而來勝敗之機, 有由於自然者, 有由於人爲者, 由於自然者, 謂之自然淘汰, 由於人爲者, 謂之人事淘汰, 淘汰不已而種乃日進焉』이라고 했다.

이밖에도 다윈주의를 소개하는 글과 설명하는 글들이 1900 - 1910 사이에 많이 발표되었다.

한편 다윈思想은 사회의 여러 방면에 침투하였으며 특히 生存競爭, 自然淘汰, 適者生存이